

투데이 칼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분 단으로 인해 남북한에서 각각 지불한 군사비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 경제가 서로 보완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특히 희토류는 세계 제1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합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주변국들이 남북한을 분리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기도가 그것이다.

주변국들의 편의에 따라 남북한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된다면 한반도 경제력은 크게 도약할 것이다. 통일은 경제적·문화적·외교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분단비용이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곳에 쓰이게 된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분단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쟁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또 다시 전쟁이 재발한다면 치명적이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의 고통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한반도는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이다. 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평화라는 거리가 먼 나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다.

그래서 과거에 슬한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문화적·경제적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민족의 역량을 분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일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남북통일은 먹고 먹히는 생존게임이 아니다.

현재의 한반도 분단사는 외부의 강요에 의한 부끄러운 역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독일·베트남·예멘이 모두 통일되었다. 한반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끼리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제3국의 참여 없이는 남북대화를 시도하기조차 어렵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정과 참여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등의 명분은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동일한 민족이라도 통일 안 하고 별개의 국가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무조건 주체사상을 버리고, 남한의 체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천황제에 대처한 것처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독일의 '동방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삼았던 독일 민족주의도 배워야 한다.

정치제도나 경제제도가 같아지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통합과 마음이 묶이는 통일이다. 남과 북이 공유하는 있는 문화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근이 중요하다. 손잡고 함께 부르는 아리랑 노래 한곡이 그 어떤 정치적인 선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늘려 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 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무력을 통해 강제로 하는 통일은 더 큰 재앙이다. 통일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국방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하는 나토 사무총장



연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회의 참가국들은 '유럽 영공방어 계획' 추진 협약서에 서명해 유럽 방공망 통합체 구축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항공기 추락 50주기, 희생자 추모하는 생존자들



1972년 비행기 추락 사고 생존자인 우투과이 렉비팀 '올드 크리스천스'의 전 멤버 카를로스 피에스(가운데)와 알라로 망히노(오른쪽 세 번째)가 친인척들과 함께 지난 13일(현지시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1972년 10월 13일 '올드 크리스천스' 선수와 가족 45명을 태운 우투과이 공군기가 칠레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해 168명이 살아남았으며 이들은 72일 동안 영하의 추위 속에서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으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서거석 교육감의 기초학력 문제

최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기초학력을 튼튼히 해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생 중심 미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는 취임 100일을 맞는 그의 첫 번째 각오다.

서 교육감은 "전북 교육을 바꾸고 살려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지난 100일 동안 '학생 중심 미래 교육', 그리고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당장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갖추고 AI기반

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소통'이다.

그는 당선 직후 도지사사수선과 교우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도내 14개 지자체, 그리고 대학 뿐 아니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다.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교육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사회의 흐름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과감한 혁신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먼저 배움이 있는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기 바란다.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약 1만5000명에 달한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노인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폐지 줍는 노인의 규모와 생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처음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들을 조사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km에 노동 시간은 11시간20분이다.

이렇게 일해서 버는 일당이 1만428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의 10% 수준이다. 이들은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먹고살 길이 없어 그만둘 수가 없다고 말한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폐지 줍는 노인'은 한국만의 현상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나라는 없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도 노인복지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등이 맞물리며 빚어진 현상이다.

문제는 폐지 줍는 노인이 20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복지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다. 캄캄한 밤에 리어카를 끌다 교통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다.

무관심 속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있을 뿐이다.

노인들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폐지 줍는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들을 빈곤의 종착지로 향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 빈곤 대책이 절실하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보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로 끌어안아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